

공사관련 기사 스크랩

순창지사

게재일자	2023.08.18.	매체명	새전북신문	게재면	11
제목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는 안전 경영				
관련사업		보도원천		보도성향	긍정
부서명	농지은행부				
기타사항					



삶의 향기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는 안전 경영

임 현 석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보다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어느새 1년이 지났다. 사망사고를 비롯해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판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안전의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해짐에 따라, 공사 경영진은 물론이고 현장 일선에서도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전관리가 체계화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현장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안전 역량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는 농어민과 함께하는 최일선 현장으로서, 시민 안전 확보·건설 현장 안전 혁신·재난 대응 등 3가지 방면에서 기본으로 돌아가 기초부터 탄탄한 안전 현장 구축에 노력을 쏟고 있다.

우리 공사는 농지은행 사업을 추진하기에 매일매일 많은 농어민분들이 청사에 방문하신다. 특히 고령의 방문객들이 많기에 청사에 존재하는 사소한 위험요인을 하나라도 놓친다면 사고가 발생해 중대한 시민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지사는 주기적으로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시행해나가고 있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혁신을 위

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해왔다. 계약단계부터 준공까지 모든 절차에서 안전의식이 반영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계약단계에서는 과업내역에 안전 관리 비용과 작업 기간이 반영되었는지 점검한다. 공사 단계에서는 협력 업체와 매달 안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에서의 위험요소에 대해 토론하여 현장별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이와 더불어 철저한 현장 중심 점검 및 관리 체계를 정착시켰다. 매주 관내의 공

응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폭염 시에는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중지하여 건설 현장 내 보건 위험 사각지대 해소에 힘썼다. 또한 폭우로 인한 저수지 붕괴 등의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함께 합동재난대처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난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행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순창군과 긴밀한 재난 대응체계를 유지하여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을 위한 장치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장을 강하게 처벌한다. 이 점에서 볼 때, 기업의 입장에선 일종의 위기로

도 보일 수 있다. 안전을 제일의 가치로 둔 경영은 이제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기에, 경영자부터 현장 근로자까지 모두의 합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직 구성원의 단 한 명이라도 안전관리를 그저 복잡하고 책임질 것이 많은 일로 치부하는 순간 합심은 무너지고 치명적인 빈틈이 발생하게 된다. 안전사고는 언제나 집요하게 빈틈을 파고드는 형질을 가지고 있기에 작은 빈틈조차 만들어선 안된다. 모든 직원들이 초심으로 돌아가 기초부터 탄탄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힘을 때 안전한 사회 실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부터 탄탄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힘쓸 때

사 현장을 관리자가 불시 점검하여 안전 위반을 꼼꼼히 체크하여 안전 점검이 관리자의 탁상행정으로 그치지 않고 현장에 밀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 채널을 적극적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현장 의견, 노사의견을 막힘없이 교류하는 의사소통 혁신을 이루어냈다.(△안전 공모전 및 포상제도 시행, △노사합심 협의체 개설 △재해 예방 전문기관 안전컨설팅 시행)

폭염·폭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대

독자의 창